

- 주요 뉴스: 6월 FOMC 정책금리 전망,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 가능성이 부상
 - 미국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소폭 둔화.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최근 경제 여건에서는 7월 0.25%p 금리인상이 적절
 - OPEC, '23년 글로벌 원유 수요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초고강도 통화긴축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4%], 금리 상승[+1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긴축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6월 FOMC 경계감 등으로 6거래일 연속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0.75%p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배경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0.8%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공격적인 금리인상 관측 등으로 11년래 최고치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8년래 최고 수준

※ 원/달러 1M NDF환율(1289.5원, +3.1원) 0.3% 상승, 한국 CDS 보합

		6/14일	6/13일	전일대비			6/14일	6/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35.5	3,749.6	-0.38%	국채 금리 10y	미국	3.47%	3.36%	11bp
	유럽	407.32	412.52	-1.26%		독일	1.76%	1.63%	13bp
	중국	3,288.9	3,255.6	1.02%	CDS 5y	한국	52bp	52bp	0bp
	일본	26,630	26,987	-1.32%		중국	85bp	86bp	-1bp
	한국	2,493.0	2,504.5	-0.46%	위험 지표	EMBI+	-	419	-
환율	달러지수	105.47	105.08	0.38%		VIX	32.69	34.02	-3.91%
	유로화	1.0416	1.0409	0.07%		WTI유	118.93	120.93	-1.65%
	엔화	135.47	134.42	-0.78%	원자재	구리	415.7	421.2	-1.31%
	위안화	6.7410	6.7546	0.20%		금	1,808.5	1,819.3	-0.59%
	원화	1,286.4	1,284.0	-0.1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6월 FOMC 정책금리 전망,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 가능성이 부상

- 6/14일 CME Group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연준이 6월에 정책금리를 0.75%p 인상할 가능성이 97.1%. 이는 전주의 3.9%에서 대폭 높아진 수치. 반면 지난주까지 확실히되던 0.5%p 인상 확률은 2.9%에 불과
- 현 상황에서는 7월에도 0.75%p(확률 94.4%) 인상이 예상되고, 9월과 11월은 0.5%p(각각의 확률은 60.5%, 55.4%), 12월은 0.25%p 또는 0.5%p(각각의 확률은 39.7%, 39.2%)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
- 골드만삭스와 TD Securities 등도 6, 7월 0.75%p 인상을 전망. Homestead Funds의 Mauricio Agudelo는 금융시장이 6월 0.75%p 인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최근의 변화를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
- 채권시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되어 미국 국채 2년물 및 10년물 금리가 각각 7bp, 11bp 상승. 특히 정책금리와 밀접하게 연동되는 2년물 금리는 3.44%로 '07년 이후 최고치. 10년물 금리도 3.47%로 '1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
-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급격한 통화긴축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이에 연준이 내년 말 0.25%p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판단. 또한 그 이후 '24년 중반까지 총 0.5%p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암호화폐 대출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

- 겐슬러 위원장은 해당 업체들이 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 행위를 하지만,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최근 인출 및 거래 중단을 선언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Celsius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

■ 미국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소폭 하락.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

-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0.8% 올라 전월(10.9%) 및 예상치(10.9%) 하회.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 Oxford Economics는 이번 결과 역시 연준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을 예상하게 만든다고 평가

■ ECB 이사, 분절화(fragmentation) 방지를 위해 무제한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

- 슈나벨 이사는 역내 취약국의 무질서한 조달비용 급증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다만 이러한 대응은 매우 정밀해야 하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미리 공지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최근 경제 여건에서는 7월 0.25%p 금리인상이 적절

- 뉓 총재는 만일의 경우 9월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0.50%p 금리인상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 또한 10월 및 11월 금리인상도 가능하며, 결국 모든 결정은 경제지표 등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

■ 독일 6월 ZEW 경기기대지수, 전월비 소폭 상승. 다만 여전히 부진한 수준

- 해당 지수는 -28을 기록하여 전월(-34.3) 대비 상승. 하지만 ZEW의 Achim Wambach는 러-우 전쟁,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 여전히 위험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진단

■ 일본 재무상, 환율은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

-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은행과 긴밀하게 외환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또한 필요한 경우 주요국 통화당국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첨언

■ OPEC, '23년 글로벌 원유 수요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고물가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원유 수요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다만 이것이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도 원유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6/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NFIB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 93.1, 4월(93.2),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6/15 현지시각 기준)

- 6월 FOMC, ECB 라가르드 총재 및 파네타 위원 강연, 미국 5월 소매매출
- 미국 5월 수입물가, 중국 5월 산업생산 및 소매매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인플레이션, 1970년대 전철을 밟지 않을 전망 - The New York Times**
(Inflation Isn't Going to Bring Back the 1970s)
 - 최근 미국 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1960년대 말부터 1980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된 시기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다른 연준의 역할로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1970년대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통화정책보다는 가격통제 등에 의존하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실패. 반면 현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과 신뢰성은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을 차단하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
- **연준의 시장 개입, 긴축발작(tapering tantrum) 발생해도 가능성은 낮은 편 - 블룸버그**
(The Fed Has No Choice But to Let This Tantrum Rip)
 - 최근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예상치가 4%에 육박. 이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개 분기 연속 상승할 것이 확실시. 물가연동채권의 10년물 금리도 0.7%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은 긴축발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과거 연준은 긴축발작 발생 시 구두개입 혹은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 그러나 최근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시장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미국 경제, 구조적 요인 등으로 고임금 지속이 예상 - Financial Times**
(The return of the workers' economy)
- **ECB, 긴축정책 추진 시 국채시장 안정화 대책도 제시할 필요 - 블룸버그**
(The ECB Needs a Bazooka to Close Bond Spreads)
- **비트코인의 미래, 정책당국의 규제 움직임은 부정적 요소 - WSJ**
(Regulation Lies in Bitcoin's Future, Clouding Its Current Valu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